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1년 5월 27일(금) - 29일(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주최 **Jeju**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주관** **KJPI**
- 후원 **우효양장분**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민생기획위원회**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대학교**
- ASSIST** **서울과학종합대학원** **DMZ** **평지희** **UNPOG** **HYUNDAI MOTOR GROUP** **PRIO**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한지질학회**



목 차

- 인사말 | 04
- 개최배경 및 목적 | 05
- 행사일정표 | 06
- 세부회의일정 | 09
- 세부연회일정 | 72
- 관광 프로그램 | 73
- 행사장 안내 | 75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제평화재단 및 동아시아 재단과 공동으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시작된 제주평화포럼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격년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제주포럼은 이번 제6회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는 연례적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제주포럼은 참가규모와 주제 면에서 계속 확대 발전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지역 공동체 형성의 문제를 시작으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적인 문제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중심의 의제에서 경제, 환경, 문화 등으로 주제를 다양화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이슈와 아시아 지역협력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주포럼이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인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두 달성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여러분의 제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제주포럼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개최배경 및 목적

2011년 제주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입니다.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은 돋보였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아시아를 떼어놓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G20체제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의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여 아시아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체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곳 제주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6회 제주포럼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평가해 보고, 아시아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협력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스탠더드의 내용과 전망을 검토하고, 신성장동력과 창조산업, 차세대 지도자와 교육의 미래,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하여도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호 이해의 증진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에서의 문화휴전은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역사적 화해, 해양안보 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문제를 폭넓게 다루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의 자연재해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는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환경보전과 도시디자인에 관한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DMZ의 생태보전과 두만강개발 등 국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의 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개발국 개발지원과 질병퇴치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효율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라는 대주제하에 평화,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등 다양한 세부주제에 대해 각 참여기관들이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독자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제6회 제주포럼은 동아시아의 역동성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행사일정표

· 회의 진행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시간 5월 27일 (금)

8
10
20
9 30
40
50
10
20
30
40
50
11 30
40
50
12 10
20
30
40
50

13 등 록

크리스탈 홀 A	크리스탈 홀 B	크리스탈 홀 C	크리스탈 홀 D	다이아몬드 홀	에메랄드 홀
유엔과 보호책임 p.9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p.10	경제발전에서 따른 국격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p.11	유엔 글로벌컴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 기여 I p.1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p.13

커피브레이크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p.14	아시아 문화 유산과 공동체 건설 p.15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브랜드 현황과 미래 p.16	유엔 글로벌컴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 기여 II p.12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p.17
---------------------------	---------------------------	-------------------------------------	--	---------------------------------------

커피브레이크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p.18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上場) p.19	한국기업의 지속경영 p.20	저개발국 감염성질환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p.21	전체회의 I New Asia Standard p.22	한·중 예술 관광 p.23
------------------------	--------------------------	--------------------	-------------------------------	--	-------------------

18 휴식 및 이동

자유만찬
섬도라

19
20 10
20
21 10
20

5월 28일 (토)						시간
등록						8
전체회의 II 그랜드볼룸 (세계지도지세션)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p.24			전체회의 III 다이아몬드 홀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아시아 전망 p.25			10 20 30 9 40 50
커피브레이크			커피브레이크			10 20 30 10 40 50
개회식 기조연설 그랜드볼룸 p.26						10 20 30 11 40 50
이동						10 20 30 12 40 50
자유오찬 하노루, 이디, 섬모과						13
크리스탈 홀 A	크리스탈 홀 B	크리스탈 홀 C	크리스탈 홀 D	다이아몬드 홀	에메랄드 홀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p.27	G20 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p.28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p.29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p.30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p.31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p.32	10 20 30 14 40 50
커피브레이크						10 20 30 15 40 50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p.33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p.34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p.35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p.36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p.37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市場) p.38	10 20 30 16 40 50
커피브레이크						10 20 30 17 40 50
동아시아 해양안보 p.39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p.40	역사회해와 동아시아 협력 p.41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 (영화, 언론, 패션) p.42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p.43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p.44	10 20 30 17 40 50
휴식 및 이동						10 20 30 18 40 5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환영만찬 그랜드볼룸 (문화공연) p.44						19
휴식 및 이동						10 20 30 20 40 50
Global Asia Night 크리스탈 홀 B p.44						21 22

시간	5월 29일 (일)						
8	등 록						
1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9	<p>대한민국, 미국, 영국</p> <p>크리스탈 홀 A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 기회 p.45</p>					<p>대한민국, 미국, 영국</p> <p>전체회의 IV 다이아몬드 홀 한·중·일 협력(기조연설) p.46</p>	<p>대한민국</p> <p>경영디자인 기조연설 에머랄드 홀 p.67</p>
10	<p>대한민국, 영국</p> <p>커피브레이크</p>	<p>대한민국, 영국, 미국</p> <p>전체회의 VI 그린드블룸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p.48</p>				<p>대한민국</p> <p>커피브레이크</p>	<p>대한민국</p> <p>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에머랄드 홀 p.50</p>
10	<p>대한민국, 영국, 미국</p> <p>크리스탈 홀 A 유럽·아메리카·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도시디자인 p.67</p>		<p>대한민국, 영국, 미국</p> <p>휴식</p>			<p>대한민국, 영국, 미국</p> <p>전체회의 V 다이아몬드 홀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p.47</p>	<p>대한민국</p> <p>휴식</p>
11	<p>대한민국, 영국, 미국</p> <p>크리스탈 홀 A 경영디자인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 대학 리더들의 토론 p.68</p>		<p>대한민국, 영국, 미국</p> <p>외교관라운드테이블 그린드블룸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p.49</p>			<p>대한민국, 영국, 미국</p> <p>전체회의 V 다이아몬드 홀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p.47</p>	<p>대한민국</p> <p>융합전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에머랄드 홀 p.51</p>
12	이동						
13	자유오전 하노루, 이디, 섬모라						
14	<p>대한민국, 영국, 미국</p> <p>제주의 미래비전 p.54</p>	<p>대한민국, 영국</p> <p>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발개혁 전망 p.52</p>	<p>대한민국, 영국</p> <p>세계무역, 환율전쟁과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p.53</p>	<p>대한민국</p> <p>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p.55</p>	<p>대한민국, 영국</p> <p>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p.56</p>	<p>대한민국</p> <p>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p.57</p>	<p>대한민국</p> <p>경영디자인 워크숍 I Collaboration p.69</p>
15	커피브레이크						
16		<p>대한민국</p> <p>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디자인보체제 구축 p.58</p>	<p>대한민국, 영국</p> <p>의료관광 I 국내외 의료관광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p.59</p>	<p>대한민국</p> <p>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p.61</p>	<p>대한민국</p> <p>장수기업 p.62</p>	<p>대한민국</p> <p>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p.63</p>	<p>대한민국</p> <p>경영디자인 워크숍 II Mutual Learning p.70</p>
17		<p>대한민국</p> <p>와신기자 리운드테이블 201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p.64</p>	<p>대한민국, 영국</p> <p>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p.65</p>	<p>대한민국</p> <p>의료관광 II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p.60</p>	<p>대한민국</p> <p>장수인의 비밀 p.66</p>		<p>대한민국</p> <p>경영디자인 워크숍 III Convergent Education p.71</p>
18	휴식 및 이동						
19	<p>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그린드블룸 p.66</p>						

* 가나다 순으로 세부회의 일정(p11-17)의 참석자 명단은 정렬되었으며, 발표순서 및 시간은 각 세션 사회자의 운영에 따라 조절될 예정입니다.

크리스탈 홀 A

유엔과 보호책임

14:00-15:10



국가 간의 영토보전과 주권수호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국가안보(State Security)의 틀로는 개인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억압받는 자국민의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에 의존하여 출발합니다. 유엔에서는 '누구의 안보, 누구의 평화인가?' 라는 측면에서 국가중심의 전통적인 안보개념 대신 개인의 안녕과 복지가 안보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론을 제기합니다.

- 최근 새로운 안보 이슈로 등장한 '보호책임' 론의 현재 동향은 어떠한가?
- 과연 오늘날 국가들은 '보호책임' 을 다하고 있는가?
- '보호책임' 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본 평화구축이란 무엇인가?

■ 사 회:

최종무(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

■ 발 표:

보리스 콘도흐(아시아평화안보센터 소장)

■ 토 론:

조창범(한국유엔협회 부회장)

크리스티안 바우레더(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보호담당관)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DMZ 평화 · 생태적 이용 ·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14:00-15:10



■ 코리아DMZ협의회는 2011년 제주포럼에서 “DMZ의 평화 · 생태적 이용 ·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DMZ는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남북한의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DMZ에서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전체의 교류협력과 통일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아DMZ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분단의 상징으로만 알려져 있는 DMZ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에 DMZ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보, 생태,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방안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DMZ의 평화 · 생태적 가치는 무엇인가?
- 어떻게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DMZ의 평화 · 생태적 이용 · 보존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차원에서 상생과 공영을 증진시킬 것인가?

■ 사 회:

이춘호(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DMZ미래연합 상임대표)

■ 주제발표:

김귀곤(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 표:

문성묵(코리아DMZ협의회 남북분과위원 원장

/전 남북군사실무 회담 수석대표)

손기웅(코리아DMZ협의회 사무처처장/코리아접경포럼 대표)

이재승(코리아DMZ협의회 국제분과위원 원장/고려대학교 교수)

함광복(코리아DMZ협의회 국내분과위원 원장/한국DMZ연구소 소장)

경제발전에 따른 국격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14:00-15:10



“한국 - 아제르바이잔 공적 원조 협력 사례”

(사)산업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 협력단(KOICA)지식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여 아제르바이잔 외국인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 관련 기관의 인적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국간 상생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전망”

한국은 세계최빈국 으로서 ODA를 받던 나라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OECD의 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공여하는 국가로 변모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ODA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위상이 바뀐 나라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최빈곤국의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추구라는 국제적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Middle Soft Power로서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의 국익을 조화있고 균형있게 추구하는 한국형 개발 협력모형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한국이 추구할 ODA정책의 대전환을 탐색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실천방안을 제시합니다.

■ 주제발표:

- 백권호(영남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중국연구센터 소장)
- 안충영(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 개발목표(MDGs)에의 기여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빈곤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새천년개발계획의 실현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5W를 제시하였습니다. 5W는 세계(World), 기후(Weather), 물(Water), 지혜(Wisdom), 복지(Welfare)라는 다섯 단어를 선정함으로써 각각의 개념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물고갈이라는 위기를 인류가 축적해온 토착의 지혜를 통해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까지 전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해결에 있어서 간과해 왔던 인류의 문화유산을 다시 돌아보고 이를 현재의 국제기구, 정부, 기업, NGO, 시민단체의 활발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 재원에 결합시켜 문제 해결의 효과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식임과 동시에 세계화의 움직임으로 소멸되어가는 다양한 소수민족의 지혜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유엔 새천년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한 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 5W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크리스탈 홀 D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의 기여 I 14:00~15:10



교육을 통한 빈곤 탈출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좌 장:

주철기(유엔 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 프랑스 대사)

■ 주제발표:

김기석(서울대학교 교수)

김 전(서울대학교 교수)

크리스탈 홀 D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의 기여 II 15:30~16:40



물 문제해결 방안과 생태계의 효과적 보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주제발표:

윤여창(서울대학교 교수)

이도원(서울대학교 교수)

이호영(서울대학교 교수)

한무영(서울대학교 교수)

에메랄드 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14:00-15:10



금년 3월 일본 도후쿠(Tohoku) 지진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먼저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지진의 원인을 개괄해보고 지진 재난을 분류합니다. 지구물리학과 역사 기록을 토대로 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진의 위험 정도와 분포를 알아봅니다. 끝으로 일본 도후쿠 지진 재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진과 쓰나미 대응책의 효율성을 논의합니다.

■ 사 회:

신호상(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학생처장)

■ 주제발표:

김재관(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15:30~16:40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 두만강 개발계획은 지난 2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부상,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대한 기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평화적 대안의 모색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 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 Tumen Initiative)는 주변국으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의 시도라는 점에서 당사국과 GTI 담당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합니다.

- 두만강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 동북아 지역 발전을 위한 한·중·일·러의 협력
- 중국, 러시아 등의 변방 낙후지역 개발
-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계

■ 사 회:

이수훈(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전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위원장)

■ 발 표:

공계유(상하이 국제학연구소 부소장)

제임스 미으닉(노스텍사스대학 툴루즈대학원 원장)

주수(두만강개발사무국 담당관)

타가 히데요시(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원장)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크리스탈 홀 B

아시아 문화 퓨전과 공동체 건설

15:30~16:40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로 불리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당초 몇몇 연예인들의 활동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던 ‘한류’는 이제 아시아 문화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성공비결은 단순한 한국적 문화의 지역·세계 진출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아시아에 알리는 동시에, 아시아인의 공통적인 정서에 호소할 수 있었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인 동시에 아시아인 공동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한류’를 통해 확산된 아시아의 문화공감대를 문화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 번영에 중요한 축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아시아 속에서 ‘한류’의 위치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시아 지역의 문화 퓨전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과연 한류는 문화 퓨전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가?
- 문화 퓨전이 공동체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문화 퓨전과 공동가치관 형성의 함수관계는 어떠한가?

■ 사 회: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 발 표:

고정민(홍익대학교 교수)

리우칭(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연구소 소장)

박인택(㈜TOUCHSKY 대표이사)

정한웅(엔터코리아 컴퍼니 대표이사)

한경아(소앤아츠 대표이사/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 브랜드 현황과 미래

15:30~16:40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 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 역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방향을 찾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세션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제주 지역 브랜드의 현황과 리딩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한국 국가 브랜드와 제주 지역 브랜드의 현황은 어떠한가?
- 국가/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 주제발표:

김윤정(탐라대학교 교수)

이남식(전주대학교 총장/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에메랄드 홀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15:30~16:40



일본 대지진을 통해 현실화된 기후변화와 대재앙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재난체계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봅니다. 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이 구성한 지진긴급대응팀의 활동과 향후 대책,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합니다.

- 일본 대지진을 볼 때, 우리나라도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를 할 필요가 있는가?
- 지진, 해일, 방사능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실태와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은?
- 원전사고를 포함한 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 재난상황시 구조기관과 지원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민간차원의 대응책, 대국민 소통 및 반응체계는?

- 사 회: 허정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박연수(소방방재청 청장)
- 토 론: 강은희(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박재범(서울신문 주필)
이래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상만(국립방재연구소 소장)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17:00~18:10



세계자연유산은 유네스코(UNESCO)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보존을 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입니다. 특히 자연유산은 최상의 자연현상을 보이거나, 빼어난 경관을 가지며, 지구의 역사를 간직한 지질유산,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자연유산은 우리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잘 보존하고 이를 통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어떻게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 합니다.

- 세계자연유산 등 환경의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은?
-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유네스코 3관왕 제주도의 특징과 환경 보존과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 사 회:
유재건(한국 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 발 표:
기 마티니(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
김희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브라힘 코무(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망 APGGN 공동의장)
이용일(대한지질학회 회장)

크리스탈 홀 B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上場)

17:00-18:10



한국주식시장의 기본 현황을 소개하고, 시장 특징을 설명하는 세션입니다. 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상장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주식시장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요건, 절차, 상장 심사 이슈, 그리고 회계, 법률 등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 한국주식시장: 한국거래소(KRX) 소개, 시장 특징
- 한국상장개요: 상장 요건, 절차 등, 외국법인 상장 이슈
- 중국기업 한국상장 하는데 회계, 법률 이슈 소개

■ 발 표:

고낙섭(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손승균(삼성증권(주) 사업부 부장) TBC
 송해성(삼성증권(주) 이사)
 최광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영수(삼성증권(주) 이사) TBC
 추원식(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한국기업의 지속경영

17:00-18:10



지속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기업의 목표이며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과 사회의 기대에 책임을 다하는 세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한국 기업의 지속경영 베스트프랙티스를 소개하고 기업 간의 지속경영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내 기업들이 지속경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국내 기업들의 지속경영을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사 회:
김재은((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송명식(유한킴벌리 부사장)
이채욱(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워크숍

크리스탈 홀 D

저개발국 감염성질환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17:00-18:10



백신의 부족과 미개발로 인해 매년 700만 명의 어린이가 전염병에 쓰러지고 있으며, 이들 희생자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입니다.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연구개발과 접종을 위해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 설립된 IVI를 한국에 유치하게 된 경위와 IVI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주요 연구성과 및 향후 IVI가 나아갈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 좌 장:

박상대(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이사장)

■ 주제발표:

방연호(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실 과장)

앤서니 플린(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 클레멘스(국제백신연구소 자원개발담당 사무차장)

■ 발 표: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회장)

조완규(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상임고문)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전체회의 I]- New Asia Standard

17:00-18:10



전 세계 주요 관심사는 “뉴 아시아(New Asia)”입니다. 선진국의 투자 기회가 점점 작아지면서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부흥하고 있는 아시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아시아는 새로운 파워를 가지게 되었고 아시아의 입장에서 세계 질서를 새롭게 정의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인의 “뉴 아시아 스탠다드”란, 기존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재규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 이외의 사업가들이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세션은 아시아의 발전을 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학 석학들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뉴 아시아 스탠다드”의 정의는 무엇인가? 뉴 아시아 스탠다드의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 “뉴 아시아 스탠다드”와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떻게 서로 융합해야 하는가? 기업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

〈키워드〉

- 뉴 아시아 스탠다드
- 새로운 지배 구조
- 아시아 미래
- 아시아 융합의 기회 및 과제

■ 좌 장:

강효상(조선일보 보도본부장)

■ 기조연설:

려본푸(呂本富)(중국과학원 관리학원 상임 부원장)

리웨이안(李維安)(동북재경대학교 총장)

상빙(項兵)(장강상학원 총장)

윤은기(中陽公무원교육원 원장)

장이청(蔣一成)(세계화상협회 총회장)

통위(童丕)(중국국제여행사(CITS) 사장)

에메랄드 홀

한·중 예술 관광

17:00-18:10



북미의 예술관광 허브가 뉴욕의 브로드웨이인 것처럼 서구유럽의 예술관광 허브는 런던의 웨스트엔드입니다. 아시아의 예술관광 허브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 동아시아 예술관광의 허브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aSSIST 레저경영전문대학원 '레저 비즈니스 프로젝트'에서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 좌 장:

최석호(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대학원 원장)

■ 발 표:

김경훈((주)에감 대표)

김기덕(ToCorea 대표)

김기술(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MBA 학생)

김중석(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류예술경영MBA 학생)

박미랑(알래스카 관광청 대리)

박정열(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백민서(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MBA 학생)

천세전(세종나모여행사 부사장)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전체회의 II] 세계지도자세션 -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09:00-10:00



■ 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미래 비전, 그리고 아시아인의 역할에 대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합니다.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아시아 각국간 경제협력, 자유무역 지대 창설안은 물론 아시아인들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식 및 문화교류 등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합니다.

- 세계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성장동력
- 아시아 경제의 상호의존과 자유무역
- 아시아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다자협력의 발전

■ 사 회:

박 진(국회의원/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 발 표: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전 필리핀 대통령)

한승수(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다이아몬드 홀

[전체회의 Ⅲ] -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 아시아 전망(기조연설)

09:00~10:20



세계의 금융시장은 모든 국가들의 기업경영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는 기업들의 국제경영전략 결정에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G20 이후, 세계는 점점 새로운 글로벌 금융과 경제표준 체계에 진입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동원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새로운 경제 및 금융 환경변화를 조망하고, 아시아 국가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그 실체의 정의와 구성 내용은 무엇인가?
- G20 체계로 인한 미래 환경의 다양한 변화가 아시아의 국가, 도시,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향후의 경제 및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키워드>

- 금융 시장의 미래
- 아시아의 위기와 그에 따른 기회
- 중국 금융시장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 금융시스템의 협력 시스템

■ 기조연설:

버지니아 캄스키(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화사 대표)

션닝(沈)(JP모건 아태지역 연구부 부사장)

왕슈안홍(王)(거린그룹 회장)

진수형(한국거래소 부이사장)

현재현(동양그룹 회장/전경련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개회식(기조연설)

11:00-12:20



아시아는 갈등과 굴욕의 역사에서 벗어나 이제 세계 정치, 경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점점 비중이 더 커가고 있는 아시아가 잘 단합되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입장에 서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시아의 여러 지도자들로부터 장차 다가올 아시아의 미래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소중한 견해를 들어보입니다.

- 아시아의 세계사적 전환점
- 새로운 아시아에 대한 비전제시
- 중국의 부상, 한반도 통일 등 도전과 기회

- **개회사:**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환영사:**
공로명(동아시아재단 이사장)
- **기조연설:**
김황식(대한민국 국무총리)
자오지청(趙盾正)(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전 필리핀 대통령)

크리스탈 홀 A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14:00-15:10



■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제 경제규모로는 세계 제2위의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그 성장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의 부상이 과연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경제면에서 주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다양 합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도 다양합니다. 중국의 부상을 잘 이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 중국의 부상, 미국의 쇠퇴? 현실인가 허구인가?
-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하는가?
- 역내 국가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도전은?

■ 사 회:

나안 찬다(예일대학교 세계화연구예일센터 소장)

■ 발 표:

모하메드 자와르 하산(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원 회장)

신정승(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소 소장)

연세홍(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

존 아이켄베리(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후나바시 요이치(전 아사히신문 주필)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G20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14:00~15:10



| 세계금융위기를 통해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신흥국을 포함한 G20 이라는 새로운 회의체를 구성하여 각국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극복의 모범국으로서 한국은 지난해 G20 의장국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수년간 운영되어 온 G20 체제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세계금융체제 전반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세계금융질서 내에서 한국의 미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세계금융위기 이후 G20이 주도해 온 세계금융체제 개혁은 어떻게 논의되어 왔으며, 금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G20은 세계경제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 사 회: 박영철(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 발 표: 마이클 헬벡(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SC제일은행 부행장)
 요시노 나오유키(게이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윌리엄 오버홀트(하버드 케네디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
 이장영(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홍기택(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크리스탈 홀 C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14:00-15:10



미래 사회를 규정 짓는 변화의 인자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는 여성의 파워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 재산 시대에서 여성들의 창의력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은 국가 산업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 현황, 성공한 여성 특허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전략 등을 토론하고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좌 장:

한미영((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한국여성단체연합 수석대표)

■ 발 표:

문승재(케이제이알텍(주) 대표)

유은하(KBS 라디오 PD)

윤명희((주)한국라이스텍 대표)

이인실(청운 국제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정정례((주)해누리 대표)

조은경(다손식품연구소 대표)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14:00~15:10



기존의 리더들보다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글로벌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에게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업, 문화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적 사고와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사회, 기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아시아 차세대 리더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을 토론하며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한 아시아의 청년 리더들의 패기와 열정을 통해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기존의 경영 리더들보다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글로벌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차세대 경영 리더들이 경영권 승계 시에 나타나게 될 기업의 운영 메커니즘, 기업문화 등의 변화는 무엇인가?
- 이에 대한 아시아 차세대 리더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 아시아 부흥을 위한 아시아 청년 리더의 역할과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 중·한 청년리더의 공동과제와 협조

■ 좌 장:

최은수(매일경제 편집국 차장)

■ 발 표:

리우저우웨이(刘洲伟)(중국탑1위 경제신문사 편집국장 겸 사장)

부리카이(布立凯)(남호국제여행사 사장)

장위량(张幼亮)(장애평(张爱萍)장군의 손자/Heng Yuan De
Lu컨설팅회사 사장)

장요우보(蒋友柏)(청귀설계회사 총재) TBC

판준중(樊俊忠)(중청실업 사장, 청뤼(Qing Lv)그룹 회장)

다이아몬드 홀

G20 이후 도시 경영의 새로운 도전

14:00-15:10



국가, 기업과 공동으로 글로벌 경쟁의 3대 요소인 도시 경영은 많은 국가들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 이슈입니다. 성공적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도시 전략과 도시 마케팅 수단이 필요합니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구 도시의 재생, 신 도시의 구축, 다양한 도시 경영 시스템의 구축, 녹색 Ubiquitous 도시 등의 이슈는 기존의 도시 경영방식에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경영자로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도시를 경영하는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 도시 경영의 새로운 정의 및 운영 체계는 무엇인가? (구체적 성공 사례를 통한 토론)
- 성공적인 도시 경영 시스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 G20 이후 도시의 새로운 발전 전략, 도시 마케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 신 도시 개발, 구 도시 재개발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가?
- 녹색 Ubiquitous 도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 좌 장:

신철호(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김창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명현(孟群)(천진에코시티 개발회사 사장)

이명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토마스 찬(홍콩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14:00~15:10



■ aSSIST 박사들이 바라보는 세계의 주요 현상, 산업 및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고찰과 토론의 장으로서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의 대지진과 그 여파에 따른 원전 사고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후 나타날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Green Mega Trend”란 주제로 투영해 보는 세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수요 변화에 대한 전망, 저탄소 시장의 흐름 변화, 그린 헬스 케어 대한 새로운 전망 그리고 최악의 원전사고에 대비한 사전적 활동에 대한 논의 등이 토론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 사 회:

이상호(경성대학교 교수)

■ 발 표:

구자원(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무처장)

김성우(삼정 KPMG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

김용언(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운영본부 책임전문위원)

서영태(퀀테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윤인모(닥터서비스 대표)

한석희(린디자인아시아 대표)

크리스탈 홀 A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15:30~16:40



동아시아에서 핵 상황은 다양합니다. 최고의 핵무기 기술을 가진 나라와 약착같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나라, 핵무기 보유에 대비하여 고도의 핵기술을 유지하려는 나라 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이유로 핵개발 기술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주와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자 안보체제가 없는 동북아시아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심각히 강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습니다.

- '핵없는 동아시아'는 가능한가? 그 대안은?
- 북한 핵의 검증가능한 해체는 가능한가?
- 6자 회담은 아직도 유용한가? 다른 대안은 있는가?
-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원자력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 사 회:

피터 헤이즈(나우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연구소 소장)

■ 발 표:

가렛 에반스(호주국립대학교 총장)

김봉현(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이베 노부야수(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 소장)

최 강(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판젠창(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14:00-15:10



21세기를 흔히 '지식 정보 시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지식과 정보의 확산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공유되는 지식의 범위 역시 넓어졌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공유는 서로에 대해 알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닙니다. 서로의 의도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대결과 배타적 각축보다는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혹은 세계 차원의 지식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교육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이를 감안, 2011년부터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KF Global e-School'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선 교육협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떤 장애요인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각국 전문가들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 지식 네트워크는 지역 평화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는가?
-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
- 현재부터 각 국가 및 공공기관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 공통의 가치 발견과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노력은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 사 회: 문우식(서울대학교 교수)
- 발 표: 시에타오(북경외국어대학교 교수)
존 던컨(UCLA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
최현선(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부장)
크리스틴 리(와세다대학교 교수)

크리스탈 홀 C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14:00-15:10



WEB 2.0 시대는 이미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WEB 2.0의 새로운 표준하에, 전자상거래의 형태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들의 체계와 운영 방식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에게 맞는 전자상거래 비법은 무엇이고 새로운 네트워크의 표준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에 대한 설명 등을 토론합니다.

- WEB 3.0 시대의 전망은 무엇이고,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전자상거래의 미래발전 방향을 어떻게 전망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의 상업화 응용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 좌 장:

이학영(한국경제 편집부국장)

■ 발 표:

리유창(刘畅)(Tencent그룹 부회장)

린동량(林栋梁)(IDG 그룹 중국 창시자)

민용재(YJM 인베스트먼트 대표)

왕슈팅(王树彤)(DH gate.com 사장)

탄첸자오(谭群钊)(산다(SNDA)게임스 회장 겸 CEO)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15:30~16:40



도시간에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의 상승은 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 실천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경쟁력 체계를 위한 인재의 육성,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투자환경의 새로운 조성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합니다.

- 도시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어떻게 결합하는가?
- 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 육성하고 성공의 노하우는 무엇인가?
- 투자환경과 도시경쟁력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는가?
-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업 그룹의 구성, 인재 육성 및 투자환경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키워드〉

- 국가경쟁력, 도시경쟁력의 요소
- 국가경쟁력 및 도시경쟁력의 평가모델
- 국가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 정부주체의 리더십과 전략

■ 좌 장:

박영균(동아일보 국장)

■ 발 표:

김원태(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문영훈(행정안전부 지방경쟁력지원과 과장)

야오왕(姚望)(보아오아시아포럼 집행위원장/보아오아시아연구원 상임부원장)

천진(陳軍)(중일한경경제발전협회 회장)

황요유이(黃友義)(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황주홍(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 성공전략

15:30~16:40



세계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다국적 기업들은 선진국내 투자 기회가 점점 축소되면서 아시아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국적기업들은 아시아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구축했지만, 새로운 환경의 변화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로 인해 새로운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전략과 기업경영 원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하여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성공 경영 노하우를 토론합니다.

- 미국, 유럽, 한국 기업의 중국 성공 노하우 소개
- 현지화 전략, 마케팅, 정부 관계, 인사 관리의 향후 발전 구상
-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간의 정보 전달과 관리 시스템

■ 좌 장:

정찬배(YTN 차장)

■ 발 표:

김중성(보스톤대학교 교수)

김태영(주필립스전자 대표이사)

란타 헤이키(카고텍코리아주 대표이사)

로흐민 다후리(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교수
/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

린성(林盛)(장가항시 한국공업원 투자유치 고문)

박경미(에이온휴잇 대표이사)

상빙(项兵)(장강상학원 총장)

예잉(叶莺)(Nalco 글로벌부총재/북아시아지역 주식)

저우웨이민(邹维民)(중야 해외 회장)

천디광(陈迪光)(절강성교민상회 회장)

천진야(陈锦亚)(알코아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회장)

후지모토 다카히로(동경대학교 교수)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上場)

15:30~16:40



■ 중국증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은 제한된 문화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기업의 증시상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현재는 자금초과 상태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중국 자금의 조달 필요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증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아가 현지화 전략차원에서도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입니다. 중국은 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외국기업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중국 상해 증권거래소에서 외국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관련 업계 및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촉매역할을 강조하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적 개방 변화
- 외국계 기업 중국 증시 상장의 의미와 절차
- 외국계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과 지켜야 할 원칙

■ 좌 장:

강정호(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전 한국 거래소 이사장)

■ 발 표:

김현영(대우증권 캐피탈마켓 본부장/상무)
임병익(투자금융협회 박사)
전병서(경희대학교 교수)

크리스탈 홀 A

동아시아 해양안보

17:00-18:10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출입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 해양은 역내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 간의 해양에서의 갈등은 영토 분쟁과 경제적 이용 문제 등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도 주로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최근 중국의 해양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항공모함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역내 해양 세력 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습니다. 향후 동아시아 해양안보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합니다.

- 부상하는 중국, 왜 해군력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
-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역내 해로안전과 영토분쟁에 주는 함의는?
-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해로안전의 효과적 관리 방안은?

■ 사 회:

후나바시 요이치(전 아사히신문 주필)

■ 발 표:

리 하웰(세계경제포럼 글로벌행사센터 소장)

백진현(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사투 리마예(워싱턴 이스트·웨스트 센터 소장)

연쉐통(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

존 아이켄베리(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17:00~18:10



아시아 사회도 이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반적인 단순한 국민교육만으로 커져 가는 국민들의 욕구와 복지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를 육성해야 할 대학의 역할은 이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 각 대학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의 대학 정책을 논의해 봅시다.

- 세계화의 시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에는 어떤 도전과 기회가 있는가?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대학은 어떤 목표를 성취해야 하며 왜 그런가?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대학의 미래는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 왜 그런가?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절한 방식으로 배출할 수 있는가?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대학은 도덕적 의무와 경쟁력이란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가?

- **공동사회:**
허항진(제주대학교 총장)/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발 표:**
가렛 에반스(호주국립대학교 총장)
고충석(전 제주대학교 총장)
리웨이안(동북재경대학교 총장)
세이케 아쭈시(게이오대학교 총장)
톤누티 닌(베트남 트라이비에트대학교 총장)

크리스탈 홀 C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17:00-18:10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이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상생(相生)하고 공영(共榮)하는 지혜와 교훈을 탐구하여 공유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문제의 갈등은 지역 내 평화와 협력에 장애물이라는 인식하에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갈등을 논의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과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토론의 장입니다.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세션은 유럽의 역사적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아시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유럽의 과거사 극복 성공사례 분석
-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사 극복을 위한 시사점
- 과거사 문제가 공동체 건설에 미치는 영향

■ 사 회:

정재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발 표:

신정승(중국연구센터 소장/전 주중국대사)

스벤 살리(일본상지대학교 교수)

옹켄용(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책연구소 이사)

피터 더즈(스텐포드대학교 명예교수)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Creative Industry : 아시아의 美(영화, 언론, 패션)

17:00~18:10



아시아 Creative Industry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인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뿐 아니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의 시장이 넓어지면서 소비자 또한 글로벌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패션과 문화는 대중의 사고와 美의 기준, 사회 원칙에 대해 영향을 주는 매체로 작용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아시아인,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인들의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와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시아인의 공통적인 취향과 문화적 특징을 토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토론합니다.

- 아시아의 전통 문화와 아시아인의 성향을 어떻게 아시아인의 특징에 따라 구축하는가?
- 아시아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 지역에 성공적으로 역수출되는가?
- 패션과 영화 산업이 아시아의 美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 좌 장:

김동호(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발 표:

곽경택(영화감독)

리칭(里程)(북경대학교 자원예술학원 고급문화예술연구센터 학과장)

바이창(白强)(3D 차이나 총재)

성필문((주)스테레오픽쳐스 회장)

위동(于冬)(북경보나영화유한그룹 회장)

이성래(한국예술원(KAI) 겸임교수)

저우청젠(周成建)(메스터스방웨이유한회사 회장)

썩용강(郑永刚)(산산 홀딩스 회장)

홍지아(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다이아몬드 홀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17:00-18:10



세계 최고의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인들을 사로잡기 위한 각 나라의 성공 전략 및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국의 사업 기회는 어떤 것인지 각 분야별 발표를 통하여 논의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의 실제 성공 사례를 들어보고, 외국인인 본 중국 시장의 사업 기회와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들려주는 중국 성공 노하우를 들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해석한 중국 발전 정책과 중국에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해 발표하여 실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사 회:

강미은(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발 표:

김해선(주)센트렌스글로브)

양즈저(杨志泽)(천진경제개발구투자촉진국 국장
/중신천진에코시티 관리위원회 주임)

이선림(주)디오홀딩스 대표이사)

조태관(주)새미르 종합 건설 대표이사)

허동옌(何东雁)(천진에코시티 개발회사 회장)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

에메랄드 홀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17:00~18:10



■ 지난 시간 동안 글로벌 리더는 서구사회 위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부상과 함께 이제는 아시아를 이끄는 리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리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지 토론합니다.

■ 좌 장:

김기용(카길 한국대표 회장)

■ 발 표:

김성희(한국리더십연구소 소장)

김영기(LG전자(주) 부사장)

민복기(EXR코리아(주) 대표)

이보균(쥬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사장)

채은미(페덱스 코리아 대표)

그랜드볼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환영만찬(문화공연)

18:30~20:00

■ 문화공연

■ 만찬사: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축 사:

문대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크리스탈 홀 B

Global Asia Night

20:30~22:00

와인과 함께하는 '2030년의 아시아' 담소

■ 주 최:

공로명(Global Asia 발행인)

크리스탈 홀 A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 기회

09:00-10:00



세계는 그린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운용을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많은 발전을 위해 기존 산업간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린 에너지 기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기업의 입장에서 그린 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또한 기존 산업간의 장벽을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토론합니다.

- 그린 에너지 기술의 전망, 사업 기회를 어떻게 구상하는가?
- 아시아 각 국의 그린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협력을 어떻게 구상하는가?
- 그린 에너지 기술로 인한 산업의 새로운 융합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 좌 장: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발 표:

루어첸(罗群)(중국항공유그룹 회장)

린동량(林栋梁)(IDG자본 공동설립자/회장)

메이더원(梅德文)(북경환경거래소 사장)

문승일(서울대학교 교수)

이 철(경일대학교 교수)

최 열(환경재단 대표)

허즈이핑(何志平)(아시아문화포럼 주석)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전체회의 IV] 한·중·일 협력(기조연설)

09:00-10:30



■ 중국은 이미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나라들의 경제 발전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는 성장을 계속하면서 독주를 달렸습니다. 중국의 성장의 내면에는 지속적인 투자와 핵심산업의 육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현 시점부터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아시아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야 합니다. 일본은 최근에 지진으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아시아 국가의 협력으로 다시 새로운 미래를 찾아갈 것이며, 이와 같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일본도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부흥의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산업 지도자,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 지도자, 한국과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국과 한국의 협력의 미래를 조명합니다.

■ 기조연설:

김도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아라이 히로유키(荒井广幸)(전 일본 자민당간사장/일본 신당
개혁 간사장)

양수길(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희범(STX에너지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오샤오강(赵小刚)(중국남차그룹 회장)

다이아몬드 홀

[전체회의 V]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11:00-12:20



세계의 경쟁은 더 이상 자원의 경쟁이 아니고 서양과 동양의 문화와 철학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기업 경영전략은 구조적인 시스템에 근거하지만, 그 내면에는 기업가의 통찰력과 사업가 정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통찰력과 사업가 정신은 항상 기업가의 개인철학과 세계관,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 기업가들은 필연적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 철학에 영향을 받아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동양철학의 주체 사상인 유교, 도교, 불교는 많은 서양 기업가들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감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동양문화와 동양철학의 보고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 미래의 지속경영을 위해 토론합니다.

- 기업가들은 문화와 철학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영적 수련은 무엇인가?
- 동양철학은 아시아 기업가의 기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 회:

이의철(아시아경제신문 정치경제부 부국장)

■ 발 표:

고두심(김만덕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TBC

김영호(사회책임투자 포럼 이사장/유한대학 총장)

마가렛 리우(국제백신연구소 부사장/전 빌게이츠 재단 백신 담당 고문)

스안다(延)(소림사 감독관리원)

이정우(서울과학종합대학원 윤리경영연구소장)

콩지엔(孔健)(공자의 제 76대 손자/공자아카데미 명예이사)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전체회의 VI]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10:00-11:10



■ 한반도가 분단된 지 60여 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남북한간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남북한은 제각기 통일에 대해 말은 아끼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전망은 서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체제 추진으로 한반도에는 변화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였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과 더불어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반도의 통일 기회가 주어질 경우 주변국들의 반응을 점검해 봅니다.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통일국가의 출현에 대해 주변국들이 긴장할 것인지 등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도 논의 합니다.

- 현재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 사 회:
 - 곽승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이 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발 표:
 - 마크 민턴(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 발터 클리츠(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소장)
 - 수창허(상해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대학 학장)
 - 에브게니 아파나시예프(러시아 외교부 인사국장)
 - 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11:20-12:20



한반도 주변 정세, 남북한 관계 및 통일전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통일전망 등에 대해 학자와 언론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한 주요국대사들로부터 그들의 보는 관점과 견해를 들어봅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 이후의 각국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봅니다.

-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주변국들의 시각 및 입장
-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 주요 대사들의 평가
- 한반도 통일 이후의 협력

- 사 회:
 - 곽승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발 표:
 - 마크 토클라(주한 미국부대사)
 - 스칸드 란잔 타알(주한 인도대사)
 - 이준규(외교안보연구원 원장)
 - 콘스탄틴 브누코프(주한 러시아대사)
 - 토마스 코즐로프스키(주한 EU대사)

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10:30~11:30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보안은 기업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보다 더 확실하고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산업보안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살펴보고, 금년 3.11 국회에서 통과되고 9.30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합니다.

- 최근 해외의 산업보안 정책추진 동향
- 한국의 기업보안 실태와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좌 장:

정진홍(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원장)

■ 발 표:

성선제(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양승원(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이길규(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융합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11:40-12:20



경영학은 응용학문으로서 실천지향적인 의제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추구합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상품 구매 및 조직활동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동기 등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학풍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국가, 사회, 기업 및 비영리단체 활동과 관련된 가치 및 책임의식을 요구하며, 창조적인 이해와 문제해결과 접목되는 예술적 소양도 요구됩니다. 이 세션은 융합학문으로서 경영학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에서 경영학도를 지도하는 다양한 학문분야(공학, 사회과학, 철학, 인문학, 예술학 등) 출신의 교육자들이 본인들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현재적 상황을 진단하고, 혁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사 회:

신호성(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학생처장)

■ 발 표:

고영희(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사례연구센터장)

송원진(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도서관장)

■ 토 론:

김신효(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기획협력처장)

박정열(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신중화(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여가학연구소 소장)

차경천(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14:00~15:10



북한에서 추진 중인 세습적 권력계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대내외적인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습니다.

- 북한의 세습적 권력승계, 성공할 것인가?
- 북한의 권력세습 과도기에 권력투쟁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 권력세습 과도기에 북한 '정권' 이 무너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게 될 때에 미국 중국 한국은 각각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 세습적 권력승계는 개혁 개방과 양립할 수 있는가?
- '북한식 현대화' 는 과연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 사 회:

티 제이 펴펠(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 교수)

■ 발 표:

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교수)

존 들러리(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존 스웬슨 라이트(캠브리지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진징이(북경대학교 코리아연구소 교수)

크리스탈 홀 B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14:00-15:10



지난 수년간 세계가 직면했던 금융위기는 국제경제질서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선진국들의 능력만으로는 세계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각국이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무한 경쟁을 야기하였습니다. 각국은 이제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등을 경제전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보호무역주의인지 진정한 자유무역주의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제 무역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 세계금융위기와 거시경제적 불균형, 그 함의는?
- 보호주의에 대한 유혹과 국제무역질서의 미래는?
- 도하 라운드 협상과 WTO 체제의 미래는?
- 통화 전쟁, 단순한 기우인가 현실인가?
- 도전 받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 그 성격과 대처 방안은?

■ 사 회:

안충영(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발 표:

라지브 쿠마르(국제경제관계연구 인도협의회 회장)

에이미 잭슨(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

왕웅(북경대학교 국제학대학 교수)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석영(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제주의 미래비전

14:00-15:10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적 변화에 따르는 기회와 위협요인들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제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자원과 1차생산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주요도시와 직항 노선을 늘려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세계적인 환경과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자원을 활용하여 첨단재생에너지산업을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주는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논의의 장으로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구성되는 제주도 국제고문단 위원들로부터 이러한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봅니다.

■ 사 회:

이태식(SK에너지 고문/전 주미국대사)

■ 발 표:

권병현(전 주중대사)

모리스 스트롱(북경대학교 명예 교수/전 유엔사무차장)

버지니아 캄스키(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회사 대표)

스펜서 김(미국 CBOL 그룹 회장)

알란 팀블릭(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소장)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종하(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상준(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

윌리엄 오버홀트(하버드 케네디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

장시엔윈(중국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 회장)

크리스탈 홀 C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14:00-15:10



21세기를 접어들면서 평화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탈냉전시기를 전후한 시점까지는 국가 간의 군사적 분쟁으로부터의 평가가 전통적인 주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면서 다원화된 평화의 개념이 연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에 대하여 세계적인 평화연구기관인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으로 평화연구의 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트렌드의 동아시아에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평화연구에 대한 국제적인 트렌드와 동아시아의 현 상황
- 평화연구에 대한 리뷰를 바탕으로 철학적 사상, 이론적인 아이디어, 분쟁 지역의 활동상황 검토
- 평화연구를 통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와 전세계의 갈등해소를 위한 이론적인 지식제공과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사 회: 정경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발 표: 스캇 게이츠(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책임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14:00-15:10



여성의 감성과 소통, 나눔과 관계, 그리고 창조성은 지식 창조의 시대에 가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가운데 스스로가 문화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활발하게 문화적 소양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여성들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의 삶을 마음껏 디자인하고 자유롭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화 산업 내에서 구현되는 여성들의 창조활동들에 대해 토론하고, 여성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시아 문화를 형성하는 영화, 미술, 패션 산업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성의 창조성과 역량을 다방면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경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각도로 모색해 봅니다. 더불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여성의 문화적인 잠재력과 가능성을 풀어내는 무대를 연출해 봅니다. 특히 ABC 방송이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여성 100인' 중 한 사람이자 아름다운 선동가로 알려진 클로리아 스타이넘의 여성해방 운동사를 스토리로 풀어서 흥미진진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 사 회:

김은실(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집행위원장)

■ 주제발표:

클로리아 스타이넘(미국의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

■ 토 론:

구어엔원(郭彦文)(미국아시아협회 사무총장/상해재경대학 EXPO
경제연구원 부원장)

김홍희(전 경기도 미술관 관장)

도성희(키위스톤 연구소장)

이혜경(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장필화(이화여자대학교 교수/아시아여성학회 회장)

정현경(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 교수/뉴욕 관음 선원 불교법사)

조세린(배재대학교 이핀젤러국제학부 교수)

다이아몬드 홀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14:00-15:10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구도하에, 후발주자인 아시아 자동차 기업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변화인 디자인과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단계에서 아시아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규칙들을 재정의하고 아시아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올 수 있는 새로운 게임 법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이슈들을 토론합니다.

- 새로운 자동차 표준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 아시아 자동차 산업이 구미 자동차 산업을 초월하는 전략은?
-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디자인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좌 장:

현영석(한남대학교 교수/전 코리아오토포럼 운영위원장)

■ 사 회:

최우석(조선일보 차장)

■ 발 표:

고상근(서울대학교 교수)

김기찬(전 (사)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김중식(타타대우상용차(주) 대표이사)

서승우(서울대학교 교수)

순지엔(孫建)(AT 커니 글로벌 경영컨설팅(상해) 공동 출자자
/아시아태평양지역자동차컨설팅 책임자)

쉬허이(徐和誼)(북경자동차그룹 회장)

양응철(현대자동차(주) 부회장)

전광민(연세대학교 교수)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한국자동차공업협회 산하 코리아오토포럼
(KAF) 회장)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15:30~16:40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체제구축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내 국가들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과정을 동아시아의 현실에 적용해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 유럽의 유럽안보협약기구(CSCE)와 유럽연합(EU)의 초석이 되었던 '헬싱키 프로세스', 동아시아에도 적용 가능한가?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미래는?
- 제5회 제주포럼에서 채택되었던 '제주프로세스' 구상의 현재와 미래는?

■ 사 회: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발 표:

시모니아 노다리 알렉산드로비치(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전 IMEMO 소장)

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병세(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찰스 모리슨(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 회장)

판첸창(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

크리스탈 홀 B

[의료관광세션 I] - 국내외 의료관련 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15:30~16:40



성공한 싱가포르의 레플즈 부원장, 중국 의료관광을 총괄하는 분들과 함께 기타 국내 의료관광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리기관의 해외진출 및 산업간 융합화가 본격화 되면서 의료가 국가 차원의 신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의료 관광은 의료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 관광 세션의 전반에서는 국내외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의료관광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해외의료관광 성공사례

- 사 회: 표정호(순천향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리울 칸데르왈(아폴로병원 운영 관리자)
이 철(연세의료원 원장)
프렘 쿠마 나이어(레플츠병원 부원장)
- 토 론: 강창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길주(보나케어 대표)
이기효(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신호(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조현준(현대메디스 이사)
진수남(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사업단장)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의료관광세션 II] -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 토론

17:00-18:10



천혜의 자연환경과 접근성으로 의료관광활성화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는 제주 지역의 의료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제주도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 사 회:
김철중(조선일보 기자)
- 주제발표:
이동선(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 처장)
- 토 론:
김민수(제주 한라병원 외과부 부장)
김형진(KPMG 상무)
박영수(제주관광공사 사장)
이상준(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원장)
이선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왕준(병원협회 정책이사/명지병원 이사장)
최 건(서울 우리들병원 원장)
인요한(연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크리스탈 홀 C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15:30~16:40



제주도가 그 지경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에 가시화 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맡고자 하는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홍가포르' 모델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형성을 지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1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를 일궈나가기 위한 허브(hub)를 제주에 구축하려는 국가정책의 가시화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국제 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향후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 국제자유도시사업 추진의 현황과 평가
- 국제자유도시사업 전망
- 국제자유도시사업과 평화의 섬 달성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

■ 사 회:

고성준(제주국제협의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

■ 참석자:

강승화(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부찬(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

김성준(제주지방자치학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

김창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양길현(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유지은(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장성수(제주특별광역경제권 MICE 인재양성센터장/제주대학교 교수)

정대연(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한국정부 대표/제주대학교 교수)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허정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장수기업

15:30~16:40



■ 현재는 수익성만을 쫓는 기업이 훌륭한 기업은 아닌 시대입니다. 수익성은 계속 기업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산업의 변화, 기업의 흥망, 금융의 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제는 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돈벌이의 기본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사회와 더불어 오래토록 함께 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전통적인 재무 지표뿐만 아니라 지속경영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장수기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우리기업들이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찾아봅니다.

- 장수하는 기업에게 비결이 있는 건가?
- 장수기업을 위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지속경영의 사례와 장수기업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 좌 장: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한국 지속경영학회 회장)
- 사 회: 안세연(서울대학교 박사)
- 발 표: 박영원(동경대학교 교수)
비스와나튼 고마트야마 기리쉬(가톨릭대학교 교수)
송창석(송실대학교 교수)
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장)
현승탁(주한라산 대표/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토 론: 김기찬(카톨릭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양오석(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학부 연구교수)
이경묵(서울대학교 교수)
이윤철(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다이아몬드 홀

소셜네트워크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15:30~16:40



인터넷 언론의 발달, Microblog, Twitter 등의 보편적 사용 등 현대인의 생활패턴과 정보 취득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 언론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신문평론의 부적절함이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아시아 언론들은 대부분 구미의 방식을 채택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아시아형 가치관과 생활패턴이 생성함에 따라 아시아인의 특유한 언론 협력이 필요합니다.

- 사회 환경변화로 인한 기존 언론의 위기와 공동대응
- 한·중 양국간 언론인의 마인드 전환 방법
- 아시아인의 언론 메커니즘

■ 사 회:

홍지아(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 표:

김 진(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찬호(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리우저우웨이(刘洲伟)(21세기 경제보도 사장)

삼 제임슨(일본 외신기자협회 회장)

왕잉(王英)(중국 중앙방송국(CCTV) 애니메이션유한회사 사장)

천팅(陈婷)(타이메이 홍보회사 공동 출자자/대표)

이성현(코리아 타임스 베이징 특파원)

최우석(조선일보 차장)

호어리(何力)(재경잡지 총편집장)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외신기자 라운드테이블]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17:00-18:10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일정과 국내적 상황을 보면 2012년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 등 많은 권력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북한은 지도자 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한국, 미국,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국의 지도자 교체와 권력변동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매일 매일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주한 외신기자들로부터 전망을 들어 봅니다.

- ‘대 정치변동의 해, 2012,’ 내외신 기자들은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의 정치 변동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 그리고 이러한 국내 정치적 변동이 역내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 사 회: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발 표:

마틴 팩클러(뉴욕타임즈 아시아특파원)

아르템 산지예프(로씨스까야 가제타 한국특파원)

세바스티엔 팔레리(르 피가로 한국특파원)

수미다 타쿠시(교도통신 한국특파원)

이병중(전 뉴스위크 한국특파원)

크리스탈 홀 B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17:00-18:10



새로운 미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 유엔이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3개의 람사르사이트, 세계지질공원, 제주가 세계의 환경보물섬이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국제보호지역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 지역의 독특한 보전방식이 존재합니다. 역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듯이 국제보호지역의 보전모델 또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제주에서 찾을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합니다

- 제주의 국제보호지역 보전모델은 어떠한가?
- 진정 세계에서 보편적인 모델로 제시가 가능한가?

- 사 회: 최정일(유네스코 MBA국제조정이사회 의장)
- 발 표: 이병욱(세종대학교 교수/전 환경부차관)
이상돈(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한국습지학회 회장)
조도순(카톨릭대학교 교수)
윤용택(제주대학교 교수)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크리스탈 홀 D

장수인의 비밀

17:00-18:10



장수하는 비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관심사입니다. 정말 장수하는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 ‘장수비밀을 아는 사나이’ 혹은 ‘장수의 달인’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박상철 교수가 장수인의 특징과 웰빙·장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 건강하고 행복한 웰에 이징(Wellaging)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지역 중 하나인, 제주도의 장수마을과 장수인의 특성에 대해 고승한 박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생명의 원칙, 건강의 진리, 장수의 길은 무엇인가?
- 제주지역의 장수인, 장수마을, 장수비결은 무엇인가?
-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 좌 장:
양영오(제주발전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박상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발 표: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박주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그랜드볼룸

폐회사

18:30-18:40

한태규(제주평화연구원 원장/제주포럼 집행위원장)

그랜드볼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18:40-20:00

- 만찬사:
변정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경영디자인 Track

[경영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경영에 디자인을 접목한 세션입니다. 제주도의 도시디자인 과제, 제주도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연사의 발표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홀

기조연설

09:00-10:00



| Richard Buchana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크리스탈 홀 A

유럽 · 아메리카 · 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디자인

10:30 - 11:30



| ■ 주제발표:

조동성(서울대학교 교수)

Lee Green(Vice President of Brand Experience and Strategic Design, USA)

Justus Theinert(Professor of Desig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Darmstadt, Germany)

01 May 27 (Friday)

02 May 28 (Saturday)

03 May 29 (Sunday)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 대학리더들의 토론

11:40-12:20



현대사회에서 경영디자인의 전략적 역할은 무엇이며, 대학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주제발표:

이남식(전주대학교 총장/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Jurgen Faust(CAO IED, Milan, Prof. MHMK Munich,
Germany)

Moshe Porat(Dean, Fox School of Business, USA)

Seiichiro Yonekura(Director, Institute of Innovation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

Workshop 1: Collaboration

14:00-15:10



경영디자인 분야에서 다급하고 긴박한 사회적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발 표:

정경원(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 본부장(부시장)/카이스트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

Jamer Hunt(Parsons the New School of Design, USA)

Jennifer Whyte(University of Reading, UK)

Marc Stickdorn(Management Center Innsbruck, Austria)

Miso Kim(Carnegie Mellon University, USA)

Seungene Ryang(IDEO, Tokyo Office, Japan)

Youngjin Yoo(Professor, Fox School of Business, TempleUniversity, USA)

Workshop 2: Mutual Learning

15:30-16:40



- 상호 학습: 경영자와 디자이너가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디자인 산업을 경영하는 것 외에 디자이너가 경영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품 설계, 그래픽 디자인, 상호 디자인과 브랜딩 외에 경영자가 디자이너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발 표:

김태영(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권유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전수진(연세대학교 교수)

Lars Rademacher(The Macromedia University for Media
& Communication, Germany)

MB Sarkar(Fox School of Business, Temple University,
USA)

Nicholas Berente(University of Georgia, USA)

Xin Xiang(Hong Kong Politechnique University, China)

Workshop 3: Convergent Education

17:00-18:10



우리는 우리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전문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통합된 대학교육과 대학원 교육을 개발할 수 있는가?

■ 발 표:

김원택(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신수진(연세대학교 교수)

Brigitte Borja de MOZOTA(Ecole Parsons a Paris,
Universite Paris Ouest ,
France)

Erin Cho(Parsons the New School of Design, USA)

Kaja Tooming Buchanan(Cleveland Institute of Art, USA)

Kipum Lee(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USA)

Sooshin Choi(University of Cincinnati, USA)

세부연회일정

날짜	시 간	행 사	장 소
27일 (금)	18:30~20:00	자유만찬	섬모라
28일 (토)	12:30~14:00	자유오찬	하노루, 이디, 섬모라
	18:30~20: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환영만찬	그랜드볼룸
	20:30~22:00	Global Asia Night	크리스탈 홀 B
29일 (일)	12:30~14:00	자유오찬	섬모라, 하노루, 이디
	18:30~20: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그랜드볼룸

※ 등록된 참가자에 한하여 등록데스크에서 자유 오·만찬을 위한 쿠폰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광프로그램

제6회 제주포럼 조직위원회는 2011년 5월 28~29일 양일 간 포럼 참가자 분들을 위하여 제주 관광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출발장소 및 시간: 호텔정문, 오후2시)

- 참가를 원하시면 관광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등록데스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영어, 중국어 언어별로 관광버스 각 한대 씩 운영될 예정이며, 하루 신청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문화 탐방 코스

2011년 5월 28일(토) 14:00~18:00 영어 가이드 설명

2011년 5월 29일(일) 14:00~18:00 중국어 가이드 설명



김영갑 갤러리

루게릭병으로 인해 거동조차 불편했던 몸으로 옛 삼달초등학교를 직접 다듬고 손질해서 멋진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사진작가 고 김영갑씨의 열정과 제주도의 고요와 평화를 담은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바람처럼 제주도의 걸모습만 훑고 떠나는 관광객들은 좀체 느껴보기가 어려운, 제주도의 아름다운 속살이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오름, 초원, 바다, 안개, 바람, 하늘, 그리고 웬지 모를 쓸쓸함까지 제주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의 사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 돌문화 공원(풍물패 민속공연)

돌과 흙, 나무, 쇠, 물 그리고 제주 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돌에 관한 전설을 주 테마로 한 제주돌문화공원은 100만평의 드넓은 대자연의 대지 위에 2020년까지 장기적 계획으로 조성되는 공원으로 제주돌문화의 면면과 제주민의 생활상 등을 직접 접하고 관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돌문화 공원은 돌의 고장 제주에 있는 돌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이다. 돌문화 공원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유산인 오름 앞에 자리잡고 있으며, 돌을 쌓아 만들어 놓은 성곽의 형태를 따라 나지막한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주변 전망이 시원한 돌문화공원 입구에 다다르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관광 코스

2011년 5월 28일(토) 14:00~18:00 중국어가이드 설명

2011년 5월 29일(일) 14:00~18:00 영어가이드 설명



제주올레 1코스

제주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당 올레'다. 아담하고 예쁜 시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사시사철 푸른 들을 지나 말미오름과 알오름에 오르면, 성산 일출봉과 우도, 조각보를 펼쳐놓은 듯한 들판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검은 돌담을 두른 밭들이 웅기중기 붙어있는 들의 모습은 색색의 천을 곱게 기워 붙인 한 장의 조각보처럼 아름답다. 종달리 소금밭을 거쳐 시흥리 해안도로를 지나면 성산 일출봉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지는 수마포 해변에 닿는다. 길이 끝나는 광치기 해변의 물빛도 환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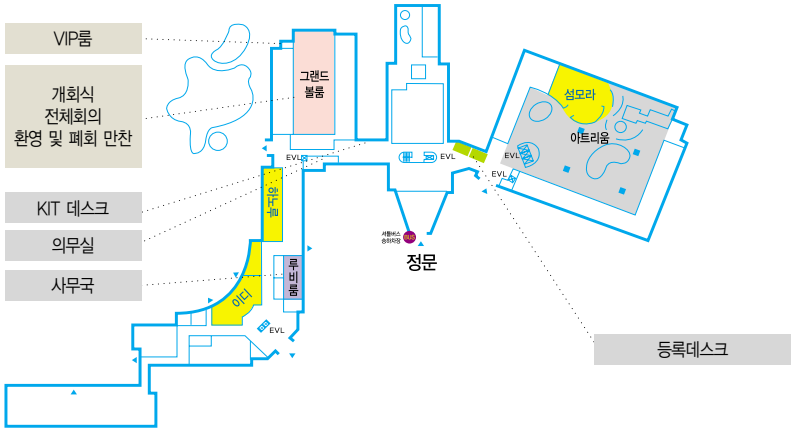


성산일출봉(제주민속공원, 해녀물길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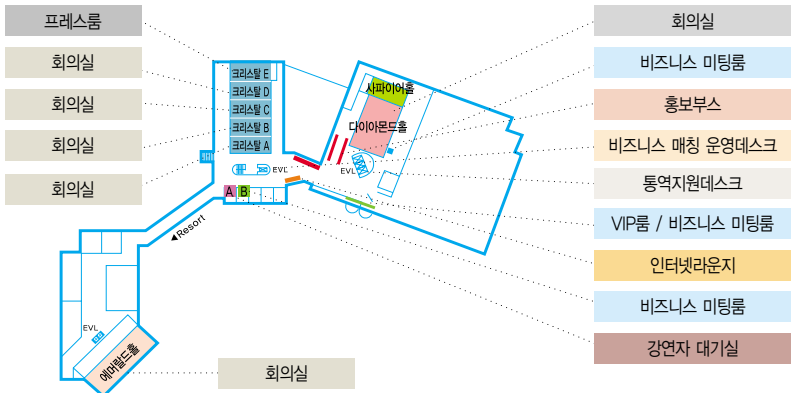
성산일출봉은 2007년에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되었다. 높이 182m. 제주특별자치도 동쪽에 돌출한 성산반도 끝머리에 있다. 중기 홍적세 때 분출된 화산인 성산봉은 커다란 사발 모양의 평평한 분화구가 섬 전체에 걸쳐 있다.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해식애를 이루며, 분화구 위는 99개의 바위 봉우리가 빙 둘러 서 있다. 그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 하여 성산이라 하며, 해돋이가 유명하여 일출봉이라고 한다.

행사장안내

1F



B1



제주포럼 조직위원회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제주평화연구원
전화:064)735-6500 / 팩스:064)735-6512 / jejuforum@jpi.or.kr / www.jejuforum.or.kr

01_May 27 (Friday)

02_May 28 (Saturday)

03_May 29 (Sunday)